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

정우락*

차례

1. 머리말
2. 대구지역과 한강학파의 성립
3. 전쟁체험의 사실적 기록
4. 전쟁체험의 시적 형상
5. 문학적 대응의 성격
6. 맺음말

국문초록

대구지역의 한강학파는 김종직 학단으로 대표되는 영남 사림파의 성장, 이황과 조식의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자장 속에서 성립된다. 채응린 등이 이끌던 대구의 학술계가, 정구가 이 지역에 등장하면서 광재검과 서사원 등 초기 제자들을 흡수하게 되고, 이로써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성립을 보게 된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래 정치적, 학문적으로 소외되어 가던 대구지역에 학문적 우월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감이 의병활동에 깊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에 대한 체험은 일기나 詩歌를 통해 제출되었다. 일기는 서사원의 『낙재일기』가 그러하듯이 대구지역의 전쟁체험을 사실적 기록을 통해 여과없이 보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준다. 시가 역시 전란으로 겪은 충격을 형상하는데 긴요한 구실을 했다. 이들은 주로 팔공산 회맹에 따른 義氣,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위로, 우국에 대한 정서,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일상의 복원에 대한 염원, 피란길에서 발생하는 사향의식 등의 주제를 형성하였다.

한강학파의 전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구체적 실천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끊임없는 독서와 기록을 강조하였으며, 격문 등을 통해 의병을 일으켜 실제적인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남학파의 성숙과 한강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학이 心學과 禮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실천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임진왜란, 대구지역, 한강학파, 문학적 대응, 의병활동

1. 머리말

본고는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시간적으로는 조선시대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임진년(1592)과 정유년(1597)을 전후한 7년간, 공간적으로는 왜군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지역, 학파상으로는 李滉(退溪, 1501-1570)과 曹植(南冥, 1501-1572)이 세상을 떠난 후 낙동강 연안지역에 강력한 문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鄭述(寒岡, 1543-1620)와 그 제자들로 구성된 한강학파, 분과 학문적 측면에서는 전통시대 넓은 의미로서의 문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은 중세기 최대의 사건이다.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하였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은 실천적 측면에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상속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내지 신분제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명나라의 원조에 따른 崇明思想이 사회적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역사적으로 조선을 전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다.

대구지역은 왜군의 주요 침략로에 위치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왜군의 주력부대는 ‘동래-기장-좌수영-울산-경주-영천-의흥-군위-문경’을 거치는 左路, ‘동래-양산-밀양-청도-경산-대구-인동-선산-상주’를 거치는 中路, ‘동래-김해-창원-영산-창녕-현풍-성주-지례-금산-추풍령’을 거치는 右路를 이용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은 중로에 해당하며, 임란 초기에는 왜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거의 점령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의병 결성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구 부사는 尹晷(1536-1597)이었는데, 1592년 4월 21일 그 스스로가 쌓은 읍성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으며, 급기야 군민 2천여 명을 이끌고 팔공산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강학파는 임진왜란기 대구지역에서 강력한 문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인해 위기로 치닫고 있던 이 지역에서, 팔공산을 거점으로 하여 의병을 일으키며 구국의 대열로 나섰다. 6월에 이르러 팔공산에 모여 의병을 결성하기로 하고, 7월 6일에는 부인사에서 향회를 열어 鄭師哲(林下, 1530-1593)과 徐思遠(樂齋, 1550-1615)을 대장

으로 하여, 공사원 李輔(苔巖, 1556-1604), 읍내 초동리장 徐思述, 수성 대장겸 현내장 孫處訥(慕堂, 1553-1634), 수성 북면장 蔡夢硯(投巖, 1561-1638), 해안 오면 도대장 郭再謙(槐軒, 1547-1615), 하빈 남면장 鄭光天(洛涯, 1558-1594) 등¹⁾ 公山義陣軍을 조직하게 된다. 이들은 정구를 스승으로 하는 한강학파이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문학적 대응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의병에 참여하였던 한강학파가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전쟁 대응을 하였는가 하는 측면을 주목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집회와 여기에 따른 맹약문, 격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임란이라는 전쟁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와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한시 및 시조, 즉 詩歌를 주목한다. 이들 문학 작품에는 당대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형상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강학파가 임란기를 맞아 어떻게 문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선조 24) 11월에 通川 郡守가 되었다. 그해 楊州와 楊根의 先塋을 참배하였고,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討賊하는 한편, 바쁜 군무의 틈을 이용하여 『通川志』를 완성하기도 했다. 1593년(선조 26) 8월에는 江陵君의 遺骸를 찾은 공로로 通政大夫에 올랐고, 이어 11월에는 江陵 府使에 제수되었다. 1594년(선조 27) 11월에는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듬해 2월에는 우부

1) 이에 대해서는 서사원의 『낙재일기』 권2에 자세하다. 이를 바탕으로 구본옥은 『임하 정사철의 학문과 임진란 팔공산 창의』(『임하 정사철과 낙에 정광천 선생』, 학이사, 2015)에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다. 『낙재일기』는 박영호에 의해 번역된 바 있으며, 이회문화사에서 2008년에 출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재번역한다.

승지, 4월에는 좌부승지, 6월에는 上護軍을 거쳐 掌隸院 判決事가 되었고, 9월에는 우부승지로 天使 問安使가 되어 南原을 거쳐 密陽으로 갔으며, 1596년(선조 29) 1월에는 강원도 관찰사, 12월에는 형조참의가 되었다. 그리고 1597년(선조 30) 1월에는 우부승지, 3월에는 장례원 판결사, 6월에는 成川 府使가 되었다. 이로 보아 정구는 임진왜란 당시 주로 내외직을 담당 하면서 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지역은 전세가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외지인인 함양 선비 鄭慶雲(孤臺, 1556~?)은 당시의 대구 사정을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가) 대구 부사 尹晁의 처가 왜적에 포로로 잡혔다.(1593년 4월 21일)

(나) 아침을 먹은 후, 길에 올라 大邱·慶山·河陽 경계를 지나니, 사람의 자취가 끊어졌다. 밭과 들이 모두 황폐하였고, 흰 갈대와 누런 띠풀이 끊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담한 풍경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겠는가?(1595년 2월 10일)

(다) 東園津을 경유하여 대구 解顔縣에 도착하여 자고자 했다. 解顔主人은 곧 沈夢鸞이다. 해안현은 산과 내가 꾸불꾸불 둘러 있고 토지는 비옥한데, 옛날의 繁華함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깨어진 주춧돌과 허물어진 담이 太平時節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1597년 1월 14일)

위의 자료는 모두 정경운의 『孤臺日錄』²⁾에서 적출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임진왜란 당시 대구지역의 참혹상을 바로 알게 된다. (가)에서는 대구 부사가 자신의 처마저 왜적에 잡히는 수모를 겪었다고 했고, (나)에서는 전

2) 정우락 외 역, 『국역 고대일록』, 태학사, 2009.

쟁으로 황폐화된 밭과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해안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구지역과 그 인근이 왜적에 의해 얼마나 유린되었던가 하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 대구 사람들은 최정산이나 팔공산 등 인근의 산으로 숨어들지 않을 수 없었고, 뜻이 있는 지사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재기를 노려야만했다. 팔공산에서의 회맹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성립 과정과 규모를 먼저 다루어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다. 임란기 한강학파가 의병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도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이어 한강학파의 문학 활동을, 일기를 통한 사실적 기록과 詩作을 통한 문학적 형상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이로써 전쟁과 관련된 산문과 운문을 두루 관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이 지닌 성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구지역의 한강학파가 임란을 맞아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2. 대구지역과 한강학파의 성립

대구(大邱)는 신라 이래 말단 縣으로 존재하다가 조선 초엽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군사 및 교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1년(선조 34)에는 경상감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대구

는 명실상부한 영남의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영남 사림파의 성장 및 퇴계학과 남명학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이념이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구는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황과 조식의 양문을 동시에 출입하면서 이들의 학문을 종합적으로 성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李灑(星湖, 1681-1763)과 安鼎福(順菴, 1712-1791)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가) 퇴계는 태백산과 소백산 아래에서 태어나 동방 유학의 宗師가 되었으니, 그 후계자들은 깊고 넓으면서 공손하고 겸손하며 문학이 찬란하여 洙泗의 유풍이 있었다. 남명은 두류산 아래에서 태어나 동방 기절의 최고가 되었으니, 그 후계자들은 정신이 강하고 실천이 용감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삶을 가볍게 여겨 이익에도 굽히지 않았으며 위험이 닥쳐온다 하여 피하지 않아 우뚝 선 절조가 있었다. 이것이 영남의 북부와 남부가 다른 점이다.³⁾

(나) 중종·명종 무렵의 성대한 문화는 漢唐을 뛰어넘어 三代와 겨룰 만하였다. 이때 퇴계와 남명 두 선생이 영남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문하에서 수업한 선비들이 나가서는 용처럼 드날려 세상에 쓰이고 물러나서는 자벌레처럼 움츠린 채 자신을 연마하였으니, 그 유풍과 여운에 실로 感發되어 흥기한 이들이 많았다.⁴⁾

앞의 자료는 이익이 『성호사설』 〈백두정간〉에서 언급한 것이고, 뒤의 자료는 안정복이 〈부사집서〉에서 발언한 것이다. (가)에서 이익이 말하고 있듯이 이황과 조식의 학문적 구별점이 뚜렷이 있다. 그러나 (나)에서 안정복이 언급하였듯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성대한 영남의 문화가 한당을 뛰어넘어

3) 李灑, 『星湖僿說』 卷1, 〈白頭正幹〉

4) 安鼎福, 『順菴集』 卷18, 〈浮查集序〉

삼대와 겨룰 만한 것이었다. 이처럼 역대의 학자들은 영남의 학문적 지형도가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이익은 이황과 조식에게서 尙仁과 主義, 즉 공맹의 학문역량을 엿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우성은 정구의 한강학을 떠올리고, “선생은 남명적 체질 위에 퇴계적 함양을 가했던 것이다.”⁵⁾라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한강학파가 등장하기 전 대구지역의 학문적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 우선 金宗直(估畢齋, 1431-1492) 학단의 활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직 자신이 인근의 선산이나 밀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의 제자 金宏弼(寒暄堂, 1454-1504)은 현풍이 고향이었으니, 당시 대구지역은 영남학파를 이룩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었다.⁶⁾ 두루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굉필은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우면서, 이 책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일컬었다고 한다. 이러한 실천적 학문 경향을 지닌 그가 현풍에 세거하면서 처가인 합천 冶爐와 처외가인 성주 伽川 등지를 왕래하면서 많은 사류들과 교유하게 된다.⁷⁾

16세기 이후에는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蔡應麟(松潭, 1529-1584)·鄭師哲(林下, 1530-1593)·全慶昌(溪東, 1532-1585)을 들 수 있다. 채응린은 금호강변에 鴨鷺亭과 小有亭을 건립하여 강학하였는데, 서사원이 그의 제자이기도 하다. 특히 이

5) 이우성, 『국역 한강집』,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2001. 5쪽.

6) 김형수, 「17세기 초 대구사림의 형성과 분화」, 『역사교육논집』 36, 역사교육학회, 2006. 참조.

7) 이밖에도 김종직의 문인으로 대구와 인근의 거리에서 활동한 사람은 김굉필 외에도 현풍의 郭承華(揆軒, ?-?)와 밀양의 朴漢柱(迂拙齋, 1459-1504), 성주의 金孟性(止止堂, 1437-1487), 청도의 金駟孫(濯纓, 1464-1498), 김천의 曹偉(梅溪, 1454-1503) 등이 있었다.

들 가운데 전경창은 이황의 학문을 사모하여 가야산에 들어가 『심경』과 『근사록』 등을 읽었다고 하고, 정사철 역시 이들과 사귀면서 김종직 학단이 마련한 사림과의 학문적 바탕 위에 퇴계학을 받아들이며 강학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퇴계학과의 뚜렷한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정구와의 교유를 통해 새로운 경계의 학문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전경창과 정사철의 경우 정구와 강한 밀착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정구는 전경창을 들어 “全季賀는 나의 벗이다. 화락하고 단아하며 늦도록 학문을 좋아했으나 애석하게도 그 수명이 그릇에 차지 못하고 포상이 그 공로에 차지 못하였다.”⁸⁾라고 하였고, 정사철 역시 정구보다 나이가 13세 위였지만, 정구와 도의로 사귀면서 과거를 버리고 爲己之學에 힘썼다고 한다. 전경창과 정사철이 모두 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김종직 학단이 지닌 학풍을 토대로 퇴계학의 자장 속에서 한강학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강의 문인 가운데 대구권역의 핵심인 대구와 칠곡에 거주했던 문인을 합치면 도합 42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가 32명인데, 여기에 경산 3명, 하양 9명을 더하면 모두 54명이 된다. 이는 67명인 성주지역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회연급문록』에 342명이 등재되어 있으니 약 16%가 대구권역의 한강문인이다. 여기에 현풍과 고령 등 대구와 지근의 거리에 있는 문인들의 수를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정구의 고향인 성주와 만년 강학지인 대구가 한강학파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회연급문록』에 등재되어 있는 대구지역의 한강문인을 조사

8) 孫處訥, 『慕堂集』 卷5, <溪東先生全公行錄>, “寒岡先生嘗曰全季賀吾友也. 樂而愷梯, 晚而好學, 惜其壽不滿其器賞不滿其功也.”

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⁹⁾

순번	성명	생몰년	자	호	비고
1	郭再謙	1547-1615	益甫	槐軒	30세 입문, 창의토적(解顔 五面都大將) [현풍]
2	宋遠器	1548-1617	學懋	啞軒	游從最久 [성주]
3	徐思遠	1550-1615	行甫	樂齋	28세 입문, 창의토적(大將)
4	孫處訥	1553-1634	幾道	慕堂	18세 입문, 창의토적(守城大將兼縣內將)
5	鄭光天	1553-1594	子晦	洛涯	從先生講學, 창의토적(河濱 南面將), [성주]
6	李 軾	1556-1604	景任	苔巖	33세 입문, 창의토적(公事員)
7	孫處約	1556-?	希魯	五梅亭	15세 입문, 손처눌의 동생
8	蔡夢硯	1561-1638	靜應	投巖	早登門, 창의토적(守城北面將)
9	蔡先修	1568-1634	敬仲	達西齋	遊, 채응린의 종질
10	柳時藩	1569-1616	衛仲	沙月堂	就學, 解顔北村將 柳堯臣의 아들
11	蔡先吉	1569-1646	仲吉	琴灘	就學, 채응린의 아들
12	裴襲可	1570-?	章甫	達川	受業, 서사원의 창의를 보좌
13	都聖俞	1571-1649	廷彦	養直堂	受業, 서사원부대에 군량 조달
14	鄭 鍾	1573-1612	平甫	養拙齋	就謁, 정천주의 아버지 [성주]
15	都應俞	1574-1639	諧甫	翠涯	出入, 이괄의 난·정묘호란에 활약
16	都汝俞	1574-1640	諧仲	鋤齋	29세 입문, 이괄의 난에 항명 모집
17	鄭 錡	1574-1642	靖甫	琴齋	嘗陪從, 정광천의 아들 [성주]
18	蔡先見	1574-1644	明甫	兩傳軒	往來, 채응린의 아들
19	蔡先謹	1576-1615	擇仲	大谷	往登門, 채응린의 아들
20	徐思述	?-?			서사선의 형
21	徐時立	1578-1665	立之	全歸堂	受業
22	都彦俞	1579-1623	康甫	逸庵	受業, 도응유의 동생

9) 정구의 대구 문인은 장윤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 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204-224쪽에서 조사·정리된 바 있다.

23	徐思選	1579-1651	精甫	東阜	16세 입문, 창의기병, 서사원의 종제
24	崔東岄	1583-?	卓甫		質疑, 최동집 형제의 중형
25	崔東巢	1585-1622	鎭伯	茶川	受業, 최동집의 형, 은거
26	崔東巢	1586-1660	鎭仲	臺巖	早遊, 최동윤의 동생, 승정처사로 자처
27	朴宗祐	1587-1654	君錫	陶谷	32세 입문, 병자호란 때 10조 건의
28	蔡 楸	1588-1670	子後	栢浦	出入, 채몽연의 아들
29	都慶俞	1596-1637	來甫	洛陰	講學, 도응유의 동생, 정묘호란 때 세자호중, 병자호란 참전
30	鄭天澍	1596-?	伯和	景寒齋	幼時登門, 정수의 아들 [성주]
31	都愼修	1598-1650	永叔	止巖	11세 입문
32	都愼徽	1598-1648	美五	西湖	遊, 도응유의 아들, 이이첨 규탄

위의 조사에서 보듯이 대구지역의 한강학파는 그 구성면에서 부자는 물론이고 형제, 숙질, 중형제 등과 같이 강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정구가 대구 가까운 蘆谷精舍와 泗陽精舍로 이거하기 전부터 사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정구가 대구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 문인들의 힘이 컸다. 대구의 대표적인 제자 서사원과 손치눌에게 편지를 보내 노곡으로의 이주를 상의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한강이 사빈에 사양정사를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대구의 제자들은 더욱 많아졌고, 이를 통해 全體大用 혹은 明體適用으로 언급되는 그의 학문은 이 지역에 구체적으로 흘러들 수 있었다.

한강학에서의 ‘전체’ 혹은 ‘명체’는 학문을 위한 것이고, ‘대용’ 혹은 ‘적용’은 이것의 현실적 응용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바탕하여 그의 심학과 예학은 물론이고 사회적 실천정신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10)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4. 99-100쪽 참조.

다. 우리는 여기서 居敬窮理와 應用救時를 함께 강조하며 이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구를 이해하게 된다. 그의 방대한 저서도 이 둘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제의 핵심인 전쟁체험의 사실적 기록과 시적 형상 역시 이 둘과 밀접한 연관 하에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위에서 예거한 인물들의 자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창의도적에 정사철을 비롯해서 곽재겸, 서사원, 손치눌, 정광천, 이주, 채몽연, 채선수, 도성유, 류시번 등이 중심이 되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로 보아 위의 도표 18번, 즉 채선건까지는 임란을 맞아 어떤 역할이라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연급문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具懷愼(溪巖, 1564-1634) 등도 정구의 제자로서 의병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고,¹¹⁾ 밀양지역에서 임란 때 팔공산으로 들어와 활약한 정구의 제자 孫起陽(磬漢, 1559-1617) 역시 주목된다. 특히 손기양은 1598년 1월 1일부터 쓴 『일록』과 1595년의 팔공산 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한 〈公山誌〉를 남기고 있어 대구지역의 임란체험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3. 전쟁체험의 사실적 기록

전쟁에 관한 기록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전해진다. 실기의 형태로 전

11) 구회신의 <행장>에는 “기유년(1609)에 한강 정선생께서 연경서원에 왕림하여 『심경』의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미롭고 오직 전일하게 하여 오로지 그 가운데를 잡으라.’라는 열여섯 글자에 대하여 강론하셨는데, 공은 여러 제현들과 함께 강론을 듣고 선생께 執贊하고 종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지는 여러 자료에는 자신이 겪은 체험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그 극복의지 등이 두루 제시된다. 이러한 실기류는 설화나 소설과 달리 한 개인의 체험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문서 등도 참고하지만,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나 지역의 내적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사회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실기를 중심에 두고 관련기록들을 참고하면서 전쟁의 사실적 기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쟁 초기 대구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다. 조선이 개국된 지 200년 되는 1592년(선조 25), 그해 4월 13일에 왜군은 조선을 대거 침략했다. 처음에는 왜군의 소동 정도로 보았으나, 이들의 세력은 놀라웠고 조선의 여러 성들은 차례대로 궤멸되어 갔다. 小西行長(?-1600)이 이끄는 일본군 1대는 4월 15일에 부산진성을 점령하고, 이어 宋象賢(泉谷, 1551-1592)에게 명나라를 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송상현은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당하고 그 역시 전사하고 말았다. 승세를 탄 왜군은 16일에는 기장과 좌수영, 17일에는 양산, 18일에는 밀양을 점령하였고, 21일에는 대구성까지 점령하였다. 서사원은 『낙재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가) 19일. 적의 선봉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집안일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적의 소식이 비등하여 인심이 흉흉하였으므로 朴景述에게 대문을 열어주기를 청하고서야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諸父 및 가족들이 노친을 수레에 태우고 나머지는 각각 걸어서 따랐다. 신주

를 땅에 묻고 하던 일도 그만두었다. 통곡하는 소리가 마을에 비등하였다.¹²⁾

(나) 21일. 관덕정으로 달려가서 鎭將을 만나 일을 의논하고 南山으로 나왔다. 장차 서책을 옮겨 두려고 여러 물건을 처리할 무렵 뿔뿔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놀라 바쁘게 달아나는 형세가 매우 다급하였다. 僮僕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왜적이 쳐들어와 이미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鎭將은 벌써 사방 문을 열고 도망하였고, 官庫에는 화염이 하늘을 찌릅니다.”라고 하였다.¹³⁾

(가)는 왜적이 대구에 임박한 4월 19일의 기록이고, (나)는 대구성이 이미 적에게 점령당한 4월 21일의 기록이다. 성주의 팔거현에서 태어난 서사원은 당시 남산 아래 살면서 하빈의 伊川精舍를 오가며 강학을 하고 있었다.¹⁴⁾ 위의 자료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급박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21일에는 서문 밖으로 달려가 보니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불꽃은 타오르는데 한 사람도 성에 남아 있는 자가 없었으며, 북문 밖 관속들의 초가집도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23일의 기록에는 “대포 소리가 산을 진동시키니 부자가 서로 숨는 곳을 다투고 처첩이 모두 풀을 잘라 하늘을 가렸다.”¹⁵⁾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사원은 『낙재일기』에서 전쟁 초기 대구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주요 피란지를 팔공산으로 선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팔공산은 크고 험해서 피신하기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사찰이

12)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4월 19일조.

13)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4월 21일조.

14) 연보에 의하면 서사원의 선조는 대대로 대구 달성에 살았는데, 7대조 龜溪 徐沈 대에 이르러 달성을 나라에 바치고 남산의 옛 역터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15)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4월 23일조.

있어 유사시에 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왜군이 대구를 점령하자 당시 부사였던 윤현은 관내군민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팔공산으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가까운 산골짜기에 숨기도 하였지만, 미처 피신하지 못한 백성들은 왜적에게 피살되기도 했다. 서사원은 이에 대하여 “적의 기세가 날마다 강성하였지만 읍내와는 연락이 끊기지 않았으므로 부중에는 참혹하게 살육을 당하는 자도 많다고 한다.”¹⁶⁾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 대구 사람들은 주로 팔공산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다음 기록을 함께 보자.

(가) 듣자니 城主는 관아에서 桐華寺로 피해 들어갔고, 아전 일행은 念佛庵으로 들어갔다고 한다.(1592년 4월 24일조)

(나) 비가 왔다. 이날은 비 때문에 이 마을로 피란하는 사람들이 모두 머물고 산에 올라오지 못하였다. 나는 유독 위태롭게 여겨 날이 조금 개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조모님을 모시고 나오니 여러 숙부들도 따라 나왔다. 도중에 가랑비를 맞았으며 季父는 뒤에 처져 출발하지 못했다. 일행 모두가 진흙을 튀기며 간신히 옮겨 모두 見佛庵에 투숙하였는데, 부장 洪應參이 일찍부터 머무르고 있었다.(1592년 4월 30일)

모두 서사원이 『낙재일기』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는 살기가 공중으로 오르고 불길한 기운이 들판을 덮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¹⁷⁾고 생각하면서 가솔을 이끌고 팔공산으로 숨어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겠는데, 여기에는 관인과 선비를 가리지 않았다. 대구 부사는 동화사에, 아전들은 염불암으로, 여타의 사람들은 符印寺, 三聖庵, 正覺庵, 見佛庵, 佛

16)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4월 27일조.

17) 서사원, 『낙재일기』 1593년 5월 1일조.

雲庵 등을 떠돌면서 몸을 피하였다. 이 와중에 틈틈이 높은 망대에 올라 전세를 살피기도 하였다. 거기서 이들이 본 것은 巴峯과 上洞에서 솟아나는 불길, 守城縣과 경산 쪽에서 불타고 있는 마을들이었다. 그러나 팔공산 역시 안전한 곳은 못되었다. 정광천이 『洛涯日記』에서 적고 있듯이 1593년 2월에는 왜적들이 팔공산에 침입하여 동화사를 불태우고 禹大鼎, 崔太虛 등 대구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셋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산성을 주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다. 서사원은 1592년 5월 28일의 일기에서 “우리 고을은 비록 거대하지만 한 사람도 창의를 하지 못했으니 개탄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여러 숙부들과 공산성의 천험을 보고자 서사술 등과 함께 성을 오르게 된다. 그는 이날 오후 산성에 도착하여 남문으로부터 들어가 동쪽의 曲城臺 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기와조각들을 발견하며 당시 성을 쌓았던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하기도 했다. 서사원이 숙부들과 함께 살았던 이 공산성은, 이후 한강학파의 일원인 孫起陽(鰲漢, 1559-1617) 등에 의해 중요한 전투적 요충지로 인정받는다. 손기양은 〈공산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성은 거의 10리에 넘게 뻗어 있었는데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으며 동쪽은 완만하고 서쪽은 가팔라서 성 전체의 모습은 키[箕]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놓은 듯하다. …… 남문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돌벼랑이 깎아지른 듯하여 나는 새나 지날 수 있는 곳으로 모두 천험의 땅이다. 그 북쪽은 肉山으로 된 조금 평탄한 곳이 북문의 서쪽에서 끝나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붙잡고 올라올 길이 없다. 남문의 남쪽에 솟아 오른 봉우리는 곧 주봉의 남쪽 지맥으로

18) 정광천, 『낙애일기』 1593년 2월 6일조 참조.

백운봉의 정복이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가서 동문의 남쪽에 이르게 되는데, 절벽과 골짜기가 위태롭고 험준하여 오르기 어려워서 지키는 이가 없어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다.¹⁹⁾

손기양은 공산성이 천하의 요새임을 말하고 있다. 1595년부터 승장 惟政(四溟堂, 1544-1610)이 龍起에서 이곳으로 장소를 옮겨 주둔하였는데, 당시 加藤清正은 서생포에 진을 치고 小西行長 등은 부산 등지에서 나누어 버티면서 다시 틈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경상도 순찰사가 먼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신녕 현감 손기양 등도 가족을 이끌고 이 성에 들어온다. 이때 손기양은 겁먹고 도망가는 순찰사를 뒤로 한 채, 유정과 함께 적은 군졸들을 거느리고 냉천으로 나아가 사력을 다해 싸웠다. 이에 대하여 손기양은 <공산지>에서 “왜적은 우리 병사가 적은 것을 보고 바로 산으로 올라 왔다. 여럿이 모두 힘을 다해 죽기로 싸우고, 화살이 떨어지자 큰 돌을 아래로 굴렸는데 적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마침 해가 저물었으므로 물러나 산허리에 오니 적도 또한 버리고 물러갔다.”²⁰⁾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넷째, 팔공산을 거점으로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다. 손기양의 <공산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팔공산은 유정이 이끄는 승군과 순찰사가 이끄는 관군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 보다 앞서 팔공산에 피신해 있던 정사철과 서사원 등은 公山義陣軍을 조직한다.²¹⁾ 이때 대구의 선비들은 피란 간 선조가 의주의 行在所에

19) 손기양, 『오한집』 권4, <공산지>

20) 손기양, 『오한집』 권4, <공산지>

21) 낙재의 연보에 의하면 1592년 6월 1일 彌羅店에서 문약회를 발족하여 의병활동을

서 내린 교서와 김면이 띄운 의병 격문을 동화사에서 보면서 감동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7월 6일에는 부인사에서 향회를 열어 공산의진군을 조직하게 된다. 이 때 정사철이 대장이 되고 서사원은 李景任과 함께 유사를 맡는다.²²⁾ 그러나 이후 정사철이 중기로 인한 병이 심각해져서 대장을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자(7월 16일), 하는 수 없이 7월 18일에 서사원이 대장을 맡게 된다. 7월 30일에는 鄉兵立約을 작성하고 유사를 분정한다. 다음은 당시 행한 입약 가운데 하나이다.

양반의 자제와 노복들이 종군하여 모두 나가면 노약자를 맡아서 지키는 일을 의지할 곳이 없으니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제 가운데 출가하지 않고 미약한 자나 노복 가운데 늙고 병들어 잔약한 자들은 남아서 지키게 하라. 자제도 없고 노복도 없는 노약자들은 수행하지 말게 하라. 壯丁은 아주 친하여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처자를 맡기고 떠나라.²³⁾

당시 입약은 모두 10조로 구성되었는데, 위의 것은 그 가운데 5조이다. 이에 의하면 양반의 자제들도 의병에 솔선수범하였고, 노복도 노약자는 제외되었다. 당시 양반 자제와 노복의 수는 매우 엄격하게 조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입약의 2조에 의하면, 늙고 병든 잔약한 자를 제외한 모든 양반의 자제와 노복을 찾게 하고 있다. 전쟁을 하자면 이를 수행할

시작했고, 6월 8일 동화사에 머무르면서 향병을 모집하는 통문의 초안을 다듬었다고 했다.

22) 대구의 의병이 조직되는 배경에는 이밖에도 광재우와 정인홍 등의 현저한 의병활동, 대구 이북 안동 등지에서 조목 등의 기병, 7-8월에 접어들어 관리들이 인접 수령들과 합세하며 유격전을 벌이는 것 등에 고무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사원의 『낙재일기』 권2, <招集鄉兵通文>에 보인다.

23) 서사원, 『낙재일기』 권2, <鄉兵立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원 역시 8월 29일 조모의 상을 당하여 군무를 볼 수가 없었고, 이어 손처놀이 義兵將兼召募使가 되어 대구의 의병을 이끌게 된다.²⁴⁾ 그는 주로 팔조현 등에 복병을 설치하는 일, 병기를 만드는 일 등을 담당하면서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달성 아래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기도 했다.

다섯째, 附逆하는 조선인과 명군의 횡포에 대해서다. 왜적이 조선에 침입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데는 조선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부역자들은 왜인의 복장을 하고 왜적을 팔공산 등으로 끌어들었으며, 주로 노비들이 여기에 가담하였다. 『낙재일기』에서 “李士彬의 노복인 孫卜도 참여하였다. 蔡誠仲이 와서 그들을 사살하였는데 앞의 3명은 모두 용덕리 襄監官의 노비였다.”²⁵⁾라고 한 것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김성일이 崔誠(台洞, 1567-1622)를 대구 가장, 서사원과 정사철을 소모관으로 삼아 급난을 구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쓴 초유문에도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그는 여기서 “본부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간혹 왜노에게 붙어서 향도를 하거나 도적질을 한다고 하니 지극히 통분스럽다.”²⁶⁾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선을 돕기 위해 온 명군의 횡포에도 대구 백성들은 시달려야 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24) 그러나 1593년 2월 19일 손처놀이 역시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의병대장을 李輶가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이주는 『태암집』에서, “내가 낙재 모당 두 공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는데, 서공이 의병장이 된 지 몇 달 만에 조모상을 당하여 임무가 바뀌었고, 손공이 군무를 맡았다가 지금 또 상을 당하였다. 내가 본래 채주가 없는데, 홀로 여러 일을 거느리자니 ‘사람은 가벼운데 책임이 무겁다’라는 탄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주 역시 1595년 2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서재겸, 손처약, 채몽연, 채선수 등의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25)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4월 24일조.

26) 서사원, 『낙재일기』 권2, <萬曆二十年七月十九日>

당인들이 술을 바꾸어 갔다. 서행중은 머물렀고 萬乞은 閔義卿의 소를 끌고 갔다. 비가 왔기 때문에 보리 씨앗을 뿌리지 못하였다. 아침에 당인이 잃은 말을 찾으러 왔는데 노복 連卜이 거절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도리어 큰 몽둥이로 맞았다. 未時에 또 당인이 쌀을 메고 왔으나 소주가 없자 대단히 노여워하였다. 용천대의 계집종이 몽둥이에 맞았다. 당인들이 크게 소란을 일으키며 익지도 않은 술을 억지로 찾아내 거르게 하였는데,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채로 모두 메고 갔다. 당인들의 무뢰가 극도에 이르렀다.²⁷⁾

위에서 서사원은 조선을 도우러 온 명군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명군이 조선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592년 12월이었는데, 대구에 명군의 구체적인 소식이 들린 것은 1593년 5월 초였고, 이들이 대구에 나타나 횡포를 자행한 것은 1593년 6월 중순부터였다. 이들은 그들의 진영에 머무르면서 때때로 마을을 찾아와 약탈해갔기 때문에, 명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구 사람들은 가족을 대피시키기에 바빴다. 『낙재일기』 1593년 6월 24일조에 “당병이 거창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諸佛村으로 먼저 대피시켰다.”라는 대목은 이에 대한 좋은 증좌가 된다. 위의 자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명군이 술을 찾으며 대구의 백성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서사원 등 한강학파는 임란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며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응전력을 제고하였다. 이들은 전쟁 초기 대구지역의 급박한 상황, 당시 대구 사람들이 주로 팔공산으로 숨었던 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목한 공산성, 공산성을 거점으로 하여 의병 활동을 전개했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학파는 관

27) 서사원, 『낙재일기』 권1, 1593년 9월 29일조.

군과 협동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회맹을 하면서 전열을 정비해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당대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4. 전쟁체험의 시적 형상

대구지역 한강학파는 전쟁에 대한 체험을 산문만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한시나 시조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전쟁과 관련한 작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문 장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일기와 같은 산문에 비해 전쟁체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적인 기록은 주로 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정서는 운문을 통해 표출하였다. 이들이 주로 활용한 운문은 詩歌인데, 이는 한시와 시조를 포괄한다. 이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한강학파가 임란을 맞아 이들이 체험한 전쟁을 시가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팔공산을 거점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면서 회맹시를 지어 의기를 드러냈다. 앞서 살핀 바 있듯이 서사원은 의병대장이 되어 1592년 7월 30일 향병들과 立約을 하게 된다. 이들은 여기서 선조가 내린 교지를 소리 높여 읽으며 報國의 의지를 다졌고, 향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내 전투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弓矢와 창칼 등의 무기를 잡고 싸우면서 군율 역시 엄격히 했다. 이후 1596년(선조 29) 9월

28일에는 영남의 여러 의병장들이 팔공산에 집결하여 회맹을 했다. 이때 참여한 대구지역의 의병장은 崔認(1559-?), 朴忠胤(1557-1638), 徐再謙(1557-1617), 孫處約(1556-?), 蔡夢硯(1561-1638), 蔡先修(1568-1634), 崔東輔(1560-1625), 洪澣(1553-?) 등이었다. 이 가운데 손처약·채몽연·채선수 등은 한강학과의 주요 일원이다. 이들은 회맹시를 지어 의기를 다졌는데, 채선수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此世知多死義身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죽은 사람 많다는 것을 아노니,
共將矢石掃狂塵	함께 화살과 돌로 미친 왜적을 쓸어버리세.
舉杯公岳軍休日	팔공산에서 군대가 쉬는 날 술잔을 들고,
洗劒琴湖露後津	금호강 개인 나무에서 칼을 씻노라.
除去妖腰須欲速	사악한 무리를 모름지기 속히 제거하고자 하여,
蓄來銳氣更如新	날카로운 기운을 쌓으니 더욱 새로운 듯하네.
盟盤敵血男兒事	맹세의 소반에 피를 마시는 것은 남아의 일ियो,
聖代菁莪養此人	聖代の 많은 선비들이 이 사람들을 길러냈구나. ²⁸⁾

당시 팔공산에 모인 의병장은 대구 8명, 경주 33명, 영천 7명, 하양 3명, 신령 3명, 흥해 6명, 청송 1명, 밀양 3명, 청도 3명, 양산 2명, 연일 5명, 안동 13명, 영해 3명, 울산 4명, 경기 4명 등 도합 98명이었다. 이들은 왜적을 물리치려는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하여 敵血盟誓를 하였고, 서재겸의 원운에 따라 회맹시도 지었다. 채선수 역시 이에 따라 차운을 하였으니, 위의 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에서 보듯이 그는 남아로 태어나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자, 忠義를 불태우며 화살과 돌로 왜적을 쓸어버리

28) 蔡先修, 『達西齋集』 卷1, <公山會盟>

자고 했다. 채선수는 이처럼 강한 기질을 바탕으로 실천적 면모를 드러내며 당시의 회맹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둘째, 전투에서 전사 혹은 부상을 당한 이에 대한 위로와 통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기도 했다. 전쟁은 인명의 살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과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득겸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는 1592년 7월 6일에 있었던 팔공산 의병 분정 시 읍내의 達只里將을 맡았고 당시의 유사는 朴有文이었다. 이들은 부인사에서 대구지역을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정사철과 서사원을 대장으로 삼아 각 지역의 의병장과 유사를 분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달지리장이 되었던 서득겸은 牙琴巖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만다. 이에 대하여 동생 서재겸은 〈哭家兄殉節〉이라는 시를 지어, “몸을 빼어 한 병사로 먼저 창의하여, 아금암에서 혈전을 벌인 것이 나의 형님이었네.”²⁹⁾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높이고 고인의 萬古風聲을 받들고자 하였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이들에 대한 위로도 한시를 통해 했다. 다음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日黑孤城戰血紅 날 저문 외론 성에서 전투로 흘린 붉은 피,
將軍金甲凜生風 장군의 금갑에서 늠름한 기풍으로 일어나네.
天將完節應專弁 하늘이 낸 장군의 완전한 절개 응당 으뜸이니,
萬古公山柱碧空 만고의 팔공산은 푸른 하늘을 기둥처럼 받히고 있네.³⁰⁾

채몽연이 李訥(樂義齋, 1569-1599)의 부상을 두고 읊은 것이다. 이늘은 왜란 초기에 경주성이 함락되자 창의하였으며, 1596년(선조 29) 9월

29) 徐再謙, 『竹溪逸稿』〈哭家兄殉節〉, “挺身先倡一枝兵, 血戰琴巖是我兄.”

30) 李訥, 『樂義齋集』卷1, 〈在八公山陣, 爲賊丸所中, 呻吟賦詩. 附諸賢詩什〉

28일의 팔공산 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이후 1597년(선조 30)의 공산전투에서 적이 쏜 탄환이 왼팔에 적중하게 되었는데, 이때 채몽연은 위와 같은 시를 지어 이눌의 기개를 팔공산과 동일시하였다. 즉 팔공산이 큰 기둥이 되어 하늘을 떠받치고 있듯이 그의 충성이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천장’이라 한 것은 그가 의병을 모아 ‘天使將’이라는 깃발을 세웠기 때문이다. 채선수 역시 이눌의 부상에 대하여 “천사장군의 창의성, 공산의 초목도 오래도록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³¹⁾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의 한강학파는 시로써 서로 위로하며 전의를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셋째, 우국의 정서를 시조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유학자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대구지역의 한강학파도 자신의 몸을 닮은 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다. 修己治人이라는 유가적 논리가 내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간절하였다. 현재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자각에 의한 것이다. 전쟁일기에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당에 봉안된 위패의 은닉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나 조부모를 잃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고단한 피란길에 올랐던 것이다. 정광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가) 아화 설운지고 태평은 언제러니
 님금은 어찌고 노친은 엇지하리
 차라리 자난더시 주거서 아모란줄 몰오리라

(나) 서운샤 서울지고 문망함이 그지업다

31) 蔡先修, 『達西齋集』 卷1, <李若愚訥, 中賊丸以詩慰之>, “天使將軍倡義聲, 公山草木久知名.”

兵塵漠漠한이 갈기리 아득하다
 어저귀 수복고국하야 君父편케 하려뇨³²⁾

정광천은 정사철의 아들로, 임진년 겨울에 부모를 모시고 고향을 거쳐 거창으로 피란을 하였다. 이때 그는 〈술회가〉 6수와 〈병중술회가〉 3수를 짓는데, 제시한 작품은 〈술회가〉의 제1수와 제2수이다. 첫 번째 작품의 ‘임금’과 ‘노친’, 두 번째 작품의 ‘군부’에서 볼 수 있듯이 정광천은 나라와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국을 수복하여 임금과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간절히 품었던 것이다. 그의 〈병중술회가〉 3수도 기본적인 발상은 이와 같다. 특히 늙은 아버이를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였다. 이것은 유가의 기본 윤리인 부모에 대한 효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위 작품을 통해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비극적 정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넷째, 성리학에 입각한 일상의 복원을 형상화한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대구의 학술계는 한강학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고 있었다. 1570년(선조 3)에 사마시에 급제한 정사철은 정구를 만나면서부터 성리학에 잠심하게 되었으며,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기어이 밝히고 말았다³³⁾ 라고 한 것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선비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성리서를 놓지 않았다. 예컨대, 광재검의 『연보』 49세조에 “공산으로 돌아와서 假將·有司와

32) 鄭光天, 『洛涯日記』, 1592年 11月 15日條.

33) 丘鄉會 편, 『大邱儒賢錄』, <林下 鄭師哲>條 참조.

함께 군대의 일을 논의하였고, 손모당과 만나 『심경』을 강론하였다.”³⁴⁾라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서사원은 훗날 손처눌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줄 수 있었다.

辰巳干戈全失脚 임진·계사년의 전쟁으로 완전히 그릇되어,
 風塵湖海已無顏 풍진 세상에서 이미 면목이 없다네.
 只今收拾傾瓶水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병의 물을 수습해야 하나니,
 鴆毒方知狂宴安 안일에 젖은 것이 짐독인 줄을 바야흐로 알겠네.³⁵⁾

이 시는 전쟁이 막 끝나고 손처눌이 永慕堂을 건축하여 원운을 짓자 여기에 서사원이 차운을 한 것이다. 서사원은 전쟁 중에도 『근사록』과 『심경』 등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쟁과 무관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 기울어진 병의 물은 바로 전쟁 때문에 훼손된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다른 작품에서는 “惟精의 심법으로 요임금과 순임금을 공경하고, 博文約禮의 공부는 공자와 안자에게 배우리.”³⁶⁾라고 하였다. 전쟁이 끝난 때이기는 하지만 한강학파에서의 심학에 대한 강조는 구회신이 1609년(광해 1) 연경서원에서 정구를 만나던 자리에서도 보인다. 이때 정구는 『심경』을 강론하면서 요순을 통해 전해지는 16자 심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기 때문이다.³⁷⁾

다섯째,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思鄉意識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타향으로의 피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향의식은 필

34) 郭再謙, 『槐軒遺集』 <槐軒年譜> 49歲條 참조.

35) 徐思遠, 『樂齋集』 卷1, <贈孫幾道>

36) 徐思遠, 『樂齋集』 卷1, <贈孫幾道>, “惟精心法欽堯舜, 約禮工程學孔顏.”

37) 丘鄉會 편, 『大邱儒賢錄』, <溪巖 具懷愼>條 참조.

수적이다. 당시 대구 사람들은 팔공산을 중심으로 비슬산과 최정산 등 가까운 산으로 숨기도 하고, 때로는 인근 지역인 고령과 거창으로 가거나 더 먼 곳으로 떠돌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광재검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팔공산으로 피신을 하였지만 1592년 6월에 두 아들이 보리를 거두는 일로 해안에 내려갔다가 왜적에게 살해되었고, 潔과 浩, 淸과 洞 등 네 조카도 비슬산 골짜기에서 화를 당했다. 밀양에서 팔공산으로 온 한강의 제자 손기양은 팔공산 자체가 타향이었던 때문에 대구가 고향인 사람들에 비해 생각이 더욱 복잡하였다. 다음의 시를 보자.

二年棲遯八公山 2년 동안 팔공산에 살았으나,
 雪月風花興未闌 눈과 달, 바람과 꽃에도 흥이 다하지 않네.
 自笑頑疎乖世用 완고하고 성글어 세상에 쓰이지 않는 것을 스스로 비웃지만,
 又將顏面與人看 또 장차 얼굴을 들어 사람들과 더불어 보려고 하네.
 林泉入夢歸期晚 林泉이 꿈에 들어오지만 돌아갈 기약은 늦기만 하고,
 桂玉關心旅計難 식량과 땀나무에 마음 쓰여 나그네살이 어렵기만 하네.
 回首白雲天一末 머리를 돌리노라니 흰 구름이 하늘가에 떠있고,
 倚門斜日眼應寒 석양에 문을 기대서니 눈이 시려오는구나.³⁸⁾

손기양은 31세에 성주 교수로 임명되면서 정구의 제자가 된다. 임란이 일어나자 밀양의 虎距山으로 피란을 하였다가 이후 李慶承(1553-?) 등과 의병을 일으키게 된다. 1596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당시 신녕 현감에 부임해 있던 그는 순찰사의 명에 따라 그 지역의 백성들을 이끌고 공

38) 孫起陽, 『聲漢集』 卷1, <洛中旅夜, 示諸同寓.>

산성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敍上한 바 있듯이 1597년에는 사명당 유정과 함께 냉천전투를 벌이고 돌아와 〈공산지〉를 짓기도 한다. 이후 여러 곳으로 떠돌며 피란을 다니다가 1600년에는 양친을 모시고 缶溪로 이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한 것이 위의 작품인데, 여기에는 팔공산에서 식량까지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李俊(蒼石, 1560-1635)에게 준 작품에서는 팔공산에서 함께 마신 술을 떠올리며 “사귄 정은 백 번 단련한 금에도 비하기 어려워, 세상일 천 길 파도라도 위태롭지 않네.”³⁹⁾라며, 위기 속에서 우의를 더욱 다지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강학파는 전쟁체험을 다양한 시가로 형상화 하였다. 즉, 팔공산에서 의병활동을 하면서 회맹의 의기를 다지기도 하고,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에 대한 정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전쟁기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우국에 대한 정서나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일상에 대한 복원, 그리고 피란길에 발생하는 사향의식 등도 두루 노래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은 특수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전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 경험과 이에 따른 정서를 비교적 평이하게 형상화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 문학적 대응의 성격

일찍이 徐居正(四佳, 1420-1488)은 대구사람 都夏에게 당대 대구지역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학문을 독려한 바 있다. 즉 자신의 고향 대구는 경상도

39) 孫起陽, 『聲漢集』 卷1, <憶李叔平>, “交情百鍊金難比, 世事千層浪不危.”

의 큰 고을로 수십 년 이래로 문헌은 쇠락하고 습속은 투박하여 文人才士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환히 길을 열어 학생들을 선도할 자가 없기 때문'⁴⁰⁾이라 하였다. 서거정은 자신이 벼슬을 한 후 고향의 후생을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했으니, 도하에게 고향으로 내려가 그것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楊熙止(大峯, 1439-1504)가 후생을 지도하며 문풍을 이끌었으나 대구의 학문이 크게 진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종직 학단의 성장은 대구 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현풍의 김굉필이 小學童子를 자처하며 실천정신을 표방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후 이황과 조식의 양문을 넘나들었던 학자들에 의해 대구지역의 학문은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년에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정구를 비롯하여 성주의 金宇宏(開巖, 1524-1590)과 金宇顒(東岡, 1540-1603) 형제, 현풍의 裴紳(洛川, 1520-1573), 고령의 金沔(松庵, 1541-1593) 등은 지근의 거리에서 대구의 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구지역 내에서 전경창이나 정사철 등이 학문적 바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은 이상과 같은 흐름 속에 존재한다. 정구의 제자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우선 인근의 산야로 피신하였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늦게 팔공산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키며 토적의 대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생산하는데, 서사원의 『낙재일기』와 정광천의 『낙애일기』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기를 통해 그들이 체험한 고난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팔공산 회맹과 전쟁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정서를 한시와 시조로 읊조리기도 했다. 이

40) 徐居正, 『四佳集』 卷4, <送都壯元夏還鄉詩序> 참조.

러한 문학 활동은 사대부들에게 있어 일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다루되, 이것이 한강학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보기로 한다.

첫째, 퇴계학과 남명학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내적 역량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남 사림파의 토대 위에 성장한 영남학파는 김종직 학단의 소학운동과 함께 퇴남학의 자장 속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구가 소학동자로 알려진 김굉필의 외증손이며 이황과 조식의 문하에 함께 출입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李楨(龜巖, 1512-1571)이 이황에게 稟質하여 편찬한 『景賢錄』을 보완하여 『景賢續錄』을 편찬한 바 있으며, 이황과 조식에 대한 선조의 질문에 양 선생의 학문적 특장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퇴계학과 남명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영남지역의 실천주의적 학문 경향이 임란의병에 내적 원리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자료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돌이켜 보건대 영남은 인재의 府庫라 평소에 일컬어졌으니, 1천년의 신라와 5백년의 고려, 그리고 2백년의 조선 사이에 충신과 효자로서 훌륭한 명성과 뛰어난 충의가 靑史에 밝게 비치며, 절의의 아름다움과 습속의 돈후함이 동방에서 으뜸가는 것은 진실로 士民들이 모두 아는 바이다. 또한 근래의 일로 말하더라도 퇴계와 남명 두 선생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살면서 도학을 창도하고 밝혀, 인심을 純淑하게 하고 인륜을 부지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는데, 선비들이 훈도되고 점점 물들게 되어 흥기하여 사속하는 자가 많았다.⁴¹⁾

41) 金誠一, <招諭使關文>(서사원 『낙재일기』 권2 所收)

이 글은 1592년 7월에 招諭使 金誠一(鶴峯, 1538-1593)이 대구지역을 비롯한 영남 일원에 보낸 關文의 일부이다. 여기서도 보듯이 퇴계학과 남명학은 영남학을 대표한다. 이 때문에 영남의 선비들은 인륜을 부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비들은 변란을 만나 의병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어서 지하에서 우리 先正을 어찌 볼 수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성일은 영남은 이황과 조식의 훈도로 인해 비로소 학문적 성숙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의병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구지역 선비들의 기병에는 퇴남학과 이를 전수받은 한강학이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둘째, 전쟁의 와중에서도 독서와 강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정구는 사창서당 등 많은 서재를 지어 독서를 하면서 강학 활동을 전개 하였다. 전쟁의 와중에 『관동지』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때 제자 崔暉(詵齋, 1563-1640)이 그 이유를 묻자 정구는 “완급은 진실로 다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겨를이 없다고 해서 놓아두고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다.⁴²⁾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독서와 강학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 지역 선비들이 선사재나 연경서원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던 通講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⁴³⁾ 임진왜란기 한강학파의 독서와 강학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만 제시해보기로 하자.

42) 정구, 『한강집』 권6, 「問答」. 최현에 대한 논의는 정우락, 「인재 최현의 한시문학과 그 의미지향」(『동방한문학』 18, 동방한문학회, 2000.)에서 이루어졌다.

43) 대구지역 선비들의 통강에 대해서는, 구본욱,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참조.

(가) 22년 갑오, 선생이 48세였다. 가야에 가서 한강 선생을 배알하였다. 비록 난리 가운데 있었지만 왕래하면서 주자서 강론하기를 평일 같이 하였다.⁴⁴⁾

(나) 『朱書』를 읽었다. 唐兵이 아랫마을을 침략하고 갔는데, 年卜의 집에 만 미칠 따름이었다. 밤이 깊도록 『朱書』를 읽었다.⁴⁵⁾

(다) 공책을 만들어 杜律을 초록할 생각을 했다. 年卜이 陪童 可信과 함께 新倉 鄭宗憲의 집으로 가서 長利로 메밀 열다섯 말을 싣고 왔는데, 開寧의 적이 모두 달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⁴⁶⁾

(가)는 광재검의 경우로 그의 〈연보〉에 기록된 것이고, (나)와 (다)는 서사원의 경우로 그 스스로가 일기에 남긴 것이다. 위의 자료는 모두 1593년 내지 1594년의 기록이다. 이로써 우리는 적들이 경내에서 멀어지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이들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독서와 강학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사원은 『朱子書節要』, 『名臣言行錄』, 『心經』, 『近思錄』, 『小學』, 『論語』, 『大學』, 『孟子』, 『中庸』 등을 왜적의 침략과 명군의 횡포 속에서도 꾸준히 읽어나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자료인 (다)에서 보듯이 杜詩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그는 1593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바로 두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읽기도 하고 베끼기도 했다. 이것은 두보의 시가 전란 속에서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어, 공감한 바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전란 중 의로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리고 있다는

44) 郭再謙, 『槐軒遺集』〈槐軒年譜〉 48歲條.

45) 徐思遠, 『樂齋日記』, 1593年 9月 22日條.

46) 徐思遠, 『樂齋日記』, 1593年 2月 17日條.

점이다. 일찍이 정구가 함안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朴漢柱(迂拙齋, 1459-1504)를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연산군의 실정을 직간하다가 훈구파의 미움을 사서 무오사화 때 평안도 벽동에 유배되었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賜死된 인물이다. 당시 정구는 같은 고을의 수령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함안에 그의 사당을 세우고 묘제를 치러 지역민에게 의리와 기상을 알게 했다. 당시 제문에서 “공의 충성스러운 절개를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내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 분발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⁴⁷⁾이라 한 대목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손기양의 〈題急難圖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계사년 봄에 나는 福州에서 叔平을 만났다. 숙평은 그때 겹겹으로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울면서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살린 것은 형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업고 산에 오르는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마지않았기에 입으로 탄식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뒤 17년 뒤인 기유년에 叔平이 서울에 벼슬을 살았을 때, 내가 여관에 따라 간 적이 있었다. 숙평은 화가에게 〈急難圖〉를 그리게 하고 시문을 쓰게 했다.⁴⁸⁾

숙평은 李堦(蒼石, 1560-1635)의 자이다. 1593년(선조 26) 봄에 그의 형 李堦(月澗, 1558-1648)과 함께 상주의 鄉兵所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왜적이 쳐들어왔다. 당시 이준은 霍亂으로 거의 기동을 못하였는데, 그는 형에게 병으로도 죽을 몸이니 형님이나 피신하여 가문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형은 끝내 동생을 업고 白華山으로 피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손기양은 이를 주목하면서 〈급란도〉 뒤에 그 사실

47) 鄭述, 『寒岡集』 卷12, 〈祭朴迂拙齋漢柱墓文〉

48) 孫起陽, 『聲漢集』 卷4, 〈題急難圖後〉

을 특기하였다. 이밖에도 서사원이 朴景述의 두 딸이 왜적을 만나 낙동강에 투신한 사실과 朴可信의 두 딸, 任範의 딸이 죽음으로 몸을 지킨 것을 전하면서 그 烈節을 높였다.⁴⁹⁾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넷째, 단순한 기록을 넘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기의 정구는 내직으로는 동부승지나 우부승지 등으로, 외직으로는 통천 군수, 강릉 대도호부사, 성천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각 고을로 격문을 보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가 하면, 왜적이 해변에 주둔해 있고 명군이 대거 남하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대비하여 승려들을 동원해 鶴原山城을 쌓았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成川 府使가 되어 宮嬪과 왕자들이 성천으로 모이자 예를 다해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 정구는 관리로서 그 책무를 다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의 대구 제자들은 항전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역을 지키고자 했다. 손처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 첫째, 관군 훈련 이외에 선비 및 새로 우거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 따라 소집하되 다만 都將 아전은 그 별군이 관군에 낚이어 들어온 것을 미워하여 시기의 빌미를 이룸이 전부터 습속이 된 것이 두려우니, 엿드려 원하옵건대 召募軍을 침범하지 말도록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⁵⁰⁾

(나) 둘째, 군대만 가지고는 노한 뜻을 나타낼 수 없으니 활과 화살, 칼과 창이 급선무입니다. 활 만드는 사람과 대장장이의 이름을 지목하여 분속시키고 활과 화살, 칼과 창을 생산하도록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⁵¹⁾

49) 徐思遠, 『樂齋日記』 1592년 5월 18일, 7월 19일조 참조.

50) 孫處訥, 『慕堂集』 卷4, <與李巡相用淳書>

51) 孫處訥, 『慕堂集』 卷4, <與李巡相用淳書>

위 자료는 모두 손처놀이 정유재란으로 내려온 순찰사 李用淳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그는 1592년에 의병장이 되었으나 1593년에 부친상을 당해 이를 사양했고, 1597년에는 부산에 머물던 왜적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있자 의병을 일으켜 당시의 순찰사에게 ‘軍務七條’를 진달하였다. 위는 그 가운데 두 가지이다. 이밖에도 북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세부적인 작전을 설파하기도 했다. 서사원 역시 향병을 모으기 위하여 통문을 돌리는가 하면, 이들이 모이자 향병을 조직하고 〈향병입약〉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강학파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으로 옮겨나갔던 것이다.

다섯째, 한시나 시조로 전쟁체험을 형상화한 경우 그 대응력이 비교적 소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장르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산문이 구체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데 비해, 운문은 까다로운 운자를 사용하며 정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정구의 경우 노곡정사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대구지역 한강학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실인식을 예각화한 두시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작품으로 창작된 경우는 손기양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⁵²⁾ 이들의 관심사가 성리학이었기 때문일 터인데, 다음 작품을 보자.

二妙携樽慰遠征 두 젊은이 술동이 가져와 원정을 위로하니,
此時那復對羣英 이제 언제 다시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52)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오한 손기양의 문학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방식」,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참조.

三年未有鳴琴化 삼년동안 거문고를 연주하는 교화가 있지 않았으니,
 一別徒聞杖鉞行 한 번 이별한 후 다만 칼을 짚고 갔다는 말만 들리겠지.
 素友毋忘修舊學 벗들이여, 옛 학문 닦기를 잊지 말게나!
 將軍當勉死邊城 장군은 마땅히 죽음으로 변방을 지키리니.
 歲寒忠信吾堪仗 세한의 충신을 내가 의지하노니,
 莫作離亭兒女情 이별하는 정자에서 아녀자의 마음 보이지 마시게.⁵³⁾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충청도 체찰사 柳根(西垞, 1549-1627)이 서사원을 衛將 겸 募粟差使員으로 임명하여 영남으로 내려보냈다. 1594년(선조 27)부터 서사원은 청안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터였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예약에 기반한 유가적 이상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전별을 하는 자리에서 남아 있는 벗들에게 舊學 닦기를 당부하고 있다. 구학은 다름 아닌 성리학이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장군과 성리학 연마를 당부하는 학자 사이의 간극을 보게 된다. 성리학을 연마하며 본성을 찾아가던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다. 한강학파는 생각이 이러하였으므로, 전쟁이 끝난 후 손처눌은 『근사록』을 읽으면서, “난리 중에 이 책을 오래 그만 두었다가 이제 읽으니 입이 결끄럽고 또 글 뜻을 깨닫지 못함이 많다. 참으로 마음이 인욕에 막힘을 알겠다.”⁵⁴⁾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이 갖는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지역 의병활동에는 영남학파의 내적 학문 역량이 작동하고 있었던 점, 전쟁의 외중에서도 독서와 강학을 강조하였던

53) 徐思遠, 『樂齋集』 卷2, <承體察使分付領兵南下, 有儒生受業者携酒出餞, 因贈近體.>

54) 孫處訥, 『慕堂集』 卷6 <年譜> 42歲條.

점, 전란 중 의로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기렸던 점, 단순한 기록을 넘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점, 시가로 전쟁체험을 형상한 경우 그 대응력이 비교적 약화되었던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남학파의 성숙과 한강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서로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6. 맺음말

한국문학은 험난한 경험을 통해 더욱 정체를 밝혔다. 특히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의 시련이라 할 터인데, 이를 거치면서 자신의 전쟁 체험을 기록과 형상의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현실을 새롭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유학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논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충효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들은 위기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극복의 갈망은 이들로 하여금 창의토적의 선봉에 설 수 있게 했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면서 대구지역의 한강학파가 지닌 전쟁체험에 대한 기록과 그 형상을 문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은 김종직 학단으로 대표되는 영남 사림파의 성장,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자장 속에서 한강학파가 성립되었다. 즉 채응린·전경창·정사철 등이 이끌던 대구의 학술계가, 정구가 이황 및 조식의 학문을 이어받으면서 광재겸·서사원·손처눌 등 초기 제자들을 흡수하게 되고, 이로써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정구의 대구 이주는 이를 더욱 증폭시켜 다수의 대구 선비들이 노곡정사와 사양정사로 찾아와 수업을 하게 된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래 정치적, 학문적으로 소외되어 가던 이 지역에 학문적 우월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감이 의병활동에 깊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사원의 『낙재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구지역의 전쟁체험은 사실적 기록을 통해 표출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임란초기의 긴박한 전쟁 상황이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팔공산의 공산성을 거점으로 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사정도 소상히 드러난다. 의병들은 관군과 협동하면서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회맹을 하며 전열을 정비하기도 한다. 또한 여타의 실기자료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附倭나 假倭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련기 대구 사람들의 상황을 객관적 시각에서 기록하며 전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셋째, 전쟁체험에 대한 형상은 주로 詩歌를 통해 제출되었다. 특히 한시는 당대 문학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었으므로 전란으로 겪은 충격을 형상하는데 긴요한 구실을 했다. 이들이 시가로 형상한 것은 주로 팔공산 회맹에 따른 의기,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위로, 우국에 대한 정서, 유가 사상에 바탕한 평화로운 일상의 복원에 대한 염원, 피란길에서 발생하는 사향의식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전쟁체험과 그 형상이 許筠(蛟山, 1569-1618) 등의 전쟁체험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민족과 민중의 고통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데 앞장서서 문학사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로 나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넷째, 한강학파의 전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구체적 실천성을 확보

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와중에도 끊임없이 독서와 기록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보장된 사회를 간절히 희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남학파의 성숙과 한강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즉 퇴계학이 지닌 居敬窮理의 측면과 남명학이 지닌 應用救時的 측면을 정구가 종합하면서 심학과 예학, 그리고 사회적 실천성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구지역 선비들이 지녔던 학문과 실천을 함께 이해하게 된다.

대구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인데, 임진왜란에 대한 체험은 이것을 해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한강학파가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전쟁 후에는 대구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료 발굴을 통한 새로운 논의, 함안이나 창녕 등 지역을 달리하는 한강학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지역 내에서 학문적 경향을 달리하는 선비들과의 비교 논의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학문적 지형도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丘鄉會 편, 『大邱儒賢錄』, 대보사, 2011.
 徐居正, 『四佳集』
 徐思遠, 『樂齋集』
 徐再謙, 『竹溪逸稿』

孫起陽, 『磬漢集』
孫處訥, 『慕堂集』
安鼎福, 『順菴集』
李 訥, 『樂義齋集』
李 漢, 『星湖僊說』
鄭 述, 『寒岡集』
鄭光天, 『洛涯日記』
蔡先修, 『達西齋集』

구본옥, 『임하 정사철과 낙에 정광천 선생』, 학이사, 2015.
박영호 역, 『국역 낙재선생일기』, 이회문화사, 2008.
이우성, 「해제」, 『국역 한강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정우락 외 역, 『국역 고대일록』, 태학사, 2009.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4.

구본옥,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1-7쪽.
김형수, 「17세기 초 대구사림의 형성과 분화: 孫處訥의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6, 역사교육학회, 2006, 269-303쪽.
장운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 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187-237쪽.
정우락, 「오한 손기양의 문학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방식」,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253-286쪽.

Abstract

The Literary Response of Hangang School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Jeong, Woo-Rak

Hangang School in Daegu region was established within the influence of Yeongnam School, which was formed based on the thoughts of Yi Hwang and Josik, triggered by the growth of Sarim faction represented by Kim Jong-jik and his disciples. The academic circle led by Chae Eung-rin accepted early disciples including Gwak Jae-gyeom and Seo Sa-won with the appearance of Jeong Gu to form Hangang School in Daegu. The school injected academic superiority and legitimacy in Daegu region, which was getting isolated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after the mid-Joseon Dynasty, and the confidence resulting from that had a profound impact on righteous army movement.

Experience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were described in diaries and poems. As shown by *The Diary of Nakjae* by Seo Sa-won, diaries explicitly show experiences of the invasion in Daegu region using factual information. Poems also played a critical role in demonstrating the shocks from the invasion. Poems at the time had the following themes: public spirit raised by the covenant in Palgongsan Mountain; comfort for those who were killed or injured in the invasion; sentiments of patriotism;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peaceful daily life based on Confucian thoughts; and refugees' longing for hometown.

Hangang School's literary response to the war could be practiced concretely because the school constantly emphasized reading and recording amid the war and developed actual experiences into literature by raising righteous army forces with appealing writing. This was the natural result from the engagement between the maturity of Yeongnam School and the academic trend of Hangang School. This result was possible as Hangang School emphasized

practicing in society what had been learned while focusing on study of mind and study of ritual

Key Word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Daegu region, Hangang School, literary response, righteous army movement

- 논문투고일 : 2016.6.30. 심사완료일 : 2016.8.12. 게재결정일 : 2016.8.17.